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입양인가 18 세에 출생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

입양인, 그의 직계 후손 또는 합법적인 대리인이 출생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입양인들이 18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출생 증명서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S3419/A5494)는 모든 성인 뉴욕 입양인가 출생 및 생물학적 부모에 대하여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리고 모든 뉴욕 주민은 출생 기록에 접근할 동등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입양인들이 이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잘못된 일이었으며,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하여 이러한 불평등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입양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의 권리를 철폐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이나 불시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를 받는 데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입양인의 합법적인 대리인 또는 그 직계 후손도 입양인가 사망한 경우 출생 증명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Velmanette Montgomer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양인 권리 전면 재검토 법안(Clean Bill of Adoptee Rights)을 위한 상원 지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사적인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20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수천 명의 성인 입양인들의 지지 덕분입니다. 뉴욕주 전역 및 나라 전체의 성인 입양인들이 저와 이 법안에 보내주신 지지는 그저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들이 건강, 가족 역사 및 그들의 혈통에 대한 답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David I. Wepr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입양인 권리 법안에 서명한 것은 뉴욕주 전역의 입양인을 위한 중대한 발전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입양인들이 마침내 가족 역사와 의료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며, 뉴욕 주민과 동일한 인권 및 시민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 전역에서 입양인에 대한 차별을 끝나는이 상징적인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내며, 이 법안을 상원에서 지지해주신 **Velmanette Montgomery**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